

고속도로, 국토 대동맥을 잇다 7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기공식 전경(1967)



박정희 대통령 경인·경수고속도로 개통식 참석(1968)



부산-대구간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참석 시민들(1969)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식 전경(1969)

국가기록원은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일(1970.7.7)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의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고속도로, 국토 대동맥을 잇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7월 16일(수)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6.25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고, 국도를 포장하는 것이 도로 공사의 전부였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물류 수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부·호남·영동 등 고속도로는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뿐만 아니라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여 지역간 소통과 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대통령문서 5건, 동영상 16건, 사진 15건 등 총 36건으로, 1960~1990년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 및 확충 과정을 담고 있다.

- 경부고속도로(1969), 장래 고속도로 대상노선 검토(1977),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계획(1980) 등 대통령문서 5건
- 경인·경수고속도로 개통(1968), 경부고속도로 준공(1970), 호남·남해고속도로 개통식(1973),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1984),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개통(1994) 등 동영상 16건
- 고속도로건설설계조사단 발족 기자회견(1967),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기공식(1967), 경부고속도로 개통식(1970),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기공식(1976),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식 기념 합동결혼식(1984) 등 사진 15건

1960년대 중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도로 건설 관련 기관이 발족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1967년에는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설계조사단 발족과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1969년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 경인·경수(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간 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도로는 1970년대 말 전국적 노선망으로 확충되었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969년에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인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0년 7월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개통 되면서 바야흐로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다. 이후

1973년에 호남·남해고속도로가, 1975년에 영동·동해고속도로가, 1978년에 구마고속도로가 잇달아 개통되면서 기간(基幹) 노선이 완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균형 발전을 앞당겼다. 영·호남을 동서로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1984년),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중부고속도로(1987년)와 서해안고속도로(2001년)를 비롯하여, 제2경인(1996년)·중앙(2001년)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이로써 고속도로 총 연장이 1997년에는 2,000km를, 2007년에는 3,000km를, 2012년에는 4,000km를 돌파, 전국이 사통팔달로 통하는 바둑판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 준공식(1970)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간 개통(1970)



88올림픽 고속도로 개통 기념 합동결혼식(1984)



서울-원주간 영동고속도로 개통(1971)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무안간 개통(1998)

교황,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

8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의 방한(2014.8.14.~8.18)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교황,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8월 12일(화)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경궁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市國, The Vatican City State),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중심이자 대변자로서의 이름은 교황청(The Holy See). 1947년 처음 교황사절을 파견하면서 우호를 다지기 시작한 이래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사진 17건, 동영상 12건, 문서 3건 등 총 32건으로, 1950~2000년대 한국과 교황청의 외교관계, 첫 한국인 추기경 탄생 및 역대 교황의 방한(訪韓) 모습을 담고 있다.

- 주한 교황청 대사 신임장 제정식(1964), 요한 바오로 2세 김포공항 도착 직후 한국 땅에 입맞춤하는 모습 · 연도 환영(1984), 교황 공항 영접 행사(1989) 등 사진 17건
- 토마스 퀸란 주교 내방(1954), 로마교황 사절 내한(1959), 외교 강화(1963), 김수환 추기경 서임(196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1984), 제44회 세계성체대회(1989) 등 동영상 12건
- 바티칸과의 국교 수교(196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공항 환영 · 환송행사 계획(1984) 등 문서 3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천주교는 신해(1791년) · 신유(1801년) · 병인 박해(1866년) 등 초창기에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교세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1963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부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여러 교황사절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는 1947년 방 파트리치오(Patrick J. Byrne) 주교가 교황사절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중 방 파트리치오 주교는 피랍되어 ‘죽음의 행진’* 때 안타깝게 순교하였다. 이 당시 방 파트리치오 주교와 함께 피랍되었다가 정전협정으로 귀환한 토마스 퀸란(Thomas F. Quinlan) 주교가 1954년 제2대 사절로 파견되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 죽음의 행진 : 6.25전쟁 중 인민군이 성직자, 전쟁포로 등을 북한으로 압송한 사건



교황사절 토마스 퀸란 주교 방한(1954, 여의도 공향)



교황사절 토마스 퀸란 주교 방한(1954, 여의도 공향)

- ① 로마교황사절 아가지아니안 추기경 방한 환영식(1959, 김포공항)
- ② 주한 교황청 대사 청와대 의장대사열(1964)



이후 1963년 12월 11일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초대 주한 교황청 대사(안토니오 델 주디체)가 부임하였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80만 명에 불과하던 1969년 3월에는 천주교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하였다. 당시 47세의 젊은 김수환 대주교는 최연소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는데, 2009년 선종(향년 86세) 때까지 우리나라 천주교의 대변자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도 이어지면서 상호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방한하였다. 바오로 2세가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에 입맞춤하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제44회 세계성체대회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였으며,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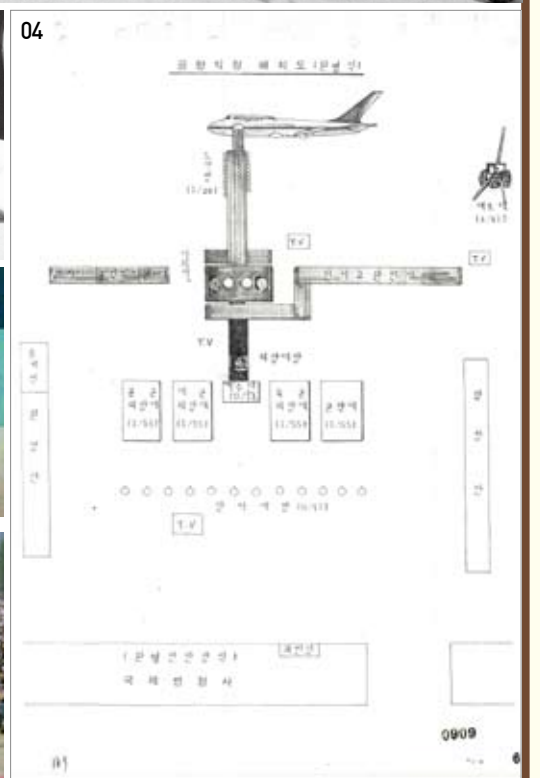
05



06



04



- ③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김포공항 도착 직후 땅에 입맞춤하는 모습(1984)
- ④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하 공식방한 환영 · 송 행사 기본계획(안)(1984)
- 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한(1989, 서울공항)
- ⑥ 제44차 세계성체대회-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여의도 미사 주도(1989, 여의도 광장)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기록으로 보다

9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2014.9.19~10.4)를 맞아, 9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9월 19일(금)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영원한 전진(Over Onward)’을 모토로 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기 위해 4년마다 열린다. 1951년 제1회 대회가 뉴델리에서 열린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제10회, 1986년), 부산(제14회, 2002년)에 이어 인천에서 제17회 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제1회 대회에는 불참하였지만, 이후 대회에는 빠짐없이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14건, 사진 18건, 문서 1건 등 총 33건으로, 1950~1980년대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선수단 모습, '86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 및 경기 모습을 담고 있다.

-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1954), 제4회 아시아올림픽대회(1958),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1970), '86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항·개회식·폐회식(1986) 등 동영상 14건
-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귀국 환영식(1954),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대표 선수단 귀국 후 카파레이드(1974),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국민축제·개회식·폐회식(1986) 등 사진 18건
-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유치계획(1980) 등 문서 1건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입장식(1962)



제5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1966)



제8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지영 선수(1978)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아시아인의 단결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아시아경기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막이 올랐다. 제1회 대회는 당초 195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개척국 인도의 내부 사정으로 1951년에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도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출전한 1954년 제2회 마닐라대회에서 스포츠 역사상 종합대회 첫 금메달(최윤철, 육상)을 따는 등 단숨에 종합성적 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의 발전상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알리고,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10회 대회(1986년)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1981년 서울 유치에 성공한 후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장, 선수촌 아파트, 도로 등의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고, 교통·숙박시설 등이 정비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대회 30일 전에는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국민대회까지 열어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드디어, 1986년 9월 20일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가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7개국 약 4,800명이 참가하여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는데, 우리나라는 금 93개, 은 95개, 동 76개 등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따면서 종합성적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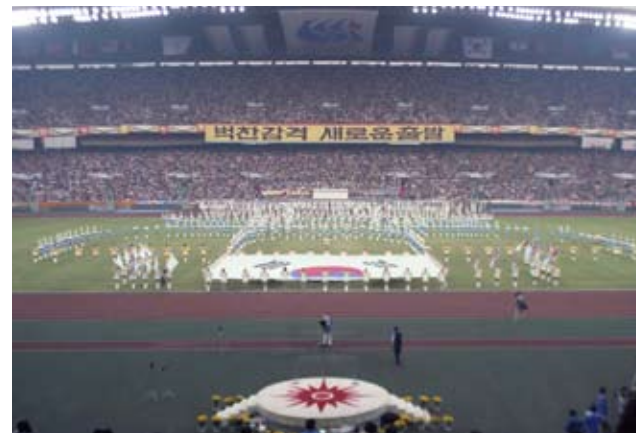
특히, 12개 주 체급을 석권한 복싱, 세계 최강 인도와 파키스탄을 꺾고 우승한 남녀 하키, 강호 중국을 누르고 우승한 남녀 탁구단체전 등은 아직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다.



제8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배구(1978)



86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다짐대회(1986, 동대문운동장)



86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국민축제(1986, 잠실운동장)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1986)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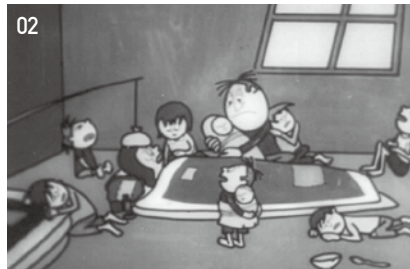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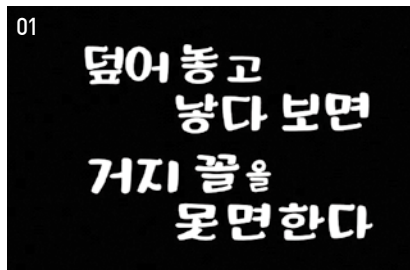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단 귀국 환영식(1954, 창경원)



제3회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접견 태극기 전달(1958, 경무대)

7월 기념일과 기록, ‘인구의 날’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7월 11일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세계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UN의 ‘세계인구의 날’ 제정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 제정 배경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있었다. 정부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개정하여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7월 10일부터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소개되고 있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것으로, 문서 4건, 영상 7건, 사진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 등 문서 4건
- 가족계획을 합시다(1964),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 등 영상 7건
-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가족계획지도요원 수료식(1964) 등 사진 5건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3),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



- | | |
|-----------------------|--|
| ① 가족계획 포어 | ④ 유송(USOM, 미국대외원조처)에서 제공한 가족계획용 이동진료차(1965년) |
| ② 세자녀 권장 만화영화 | ⑤ 가족계획 지도요원 수료식(1964) |
| ③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 ⑥ 산아제한 거리 홍보(1977년) |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관련 문서인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을 통해 당시 정부가 인구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과 ‘인구증가 억제방안 보고’(1981)를 통해 인구의 지역분산화, 각종 지원제도 도입 등 시기별 인구조절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2006)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가족계획 이동 시술반 차량(동영상, 1972)



가족계획 운동 캠페인 모습(동영상, 1972)



197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 포스터(1973)



198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 포스터(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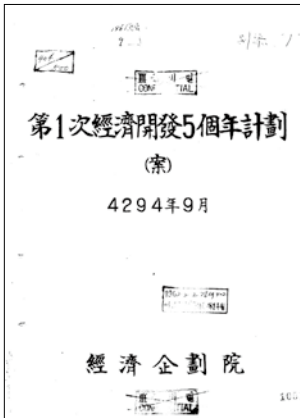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 '60년대 가족계획 홍보 만화영화,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 '1자녀 갖기 단산(斷産)운동',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가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1986년의 영상을 보면,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1970~19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문구 차이를 통해서도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2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한 반면,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고 하여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1961~70년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II』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II』 표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가기록원은 지난해부터 국무회의록을 활용한 목록집을 발간해 왔으며, 올해는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II』를 간행하였다. 이번 목록집은 1961~ 70년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제개발, 대외협력, 교육, 산업진흥 등 각 분야별 심의·의결 안건 377권 1만 8천여 건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4천여 건을 선별·수록하고 있어, 그 당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시대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국무회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조약, 군사사항, 법률 공포, 일반정책 등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원은 1949~2001년까지 생산된 국무회의 안건 관련 기록물 1,622권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안건으로 우리나라 경제안정의 기틀이 되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자동차공업 육성 종합계획,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 관한 건,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마산수출자유지역 지정 안 등이며, 이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며 “좀 더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활용한 편찬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해제한 「일제문서 해제집」,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 등을 발간하여 대학과 공공 도서관, 관련 분야 연구자 등에 배포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II」도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 기관, 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행물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모습(1963년)

우리나라 근대 은행사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기록물은 국가에서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대한천일은행은 우리은행의 전신으로 1899년 설립돼 1911년 조선 상업은행으로 개칭됐고, 광복 이후 한국상업은행으로, 이후 한빛은행 시기를 거쳐 현재 우리은행으로 개칭됐다.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은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 금융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회계 관련 자료는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置簿法)방식으로 작성되어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기록물이다.

* 송도사개치부법 : 고려시대 개성성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처리법으로 서양의 복식부기보다 200여년 앞선 기법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선정된 기록물은 은행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 정관, 지점설치 관련 문서 등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운영 관련 기록물(12건 18점)과 정일기(正日記),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출납기부 등 회계 관련 기록물(7건 57점)로 총 19건 75점이다. 주창부인 정일기(正日記)를 비롯해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등 보조장부가 함께 남아 있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송도사개치부기 문서 중 가장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황실의 자금 지원 아래 상인들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초창기의 대표적 은행으로 창립 관련 문서는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기업 경영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경제정책과 운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그 중,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는 광무3년(1899년) 이근호 등 6명이 연서(連書)하여 탁지부(국가 재무를 총괄한 행정부서) 대신에게 제출한 창립청원서에 탁지부대신의 인장을 날인한 인가서로 근대 은행의 창립과정과 인허가 내용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대한천일은행 좌목(座目)」은 구름 문양이 아름답게 장식된 푸른 비단으로 싸여진 주주(株主)명부로, 첫 페이지에 황태자인 영친왕이 기재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이 황실은행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2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



대한천일은행 정관



대한천일은행 창립 문서 일괄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 일괄



대한천일은행 좌목 : 오늘날 주주명부에 해당하며, 대한제국 황태자인 영친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훼손기록물 복원처리 지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 관리하고 있는 중요 해양 관련 기록물의 복원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록물을 인계하였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내·외 바다와 관련된 유물과 오늘날의 발달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 1만3천여 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박물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고 있다.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복원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영남권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금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록물 복원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역사기록관에서 복원처리를 완료한 기록물은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조선시대 수군(水軍) 기록물 6점과 근대기까지의 어업(漁業) 기록물 3점 등 총 9점이다.

수군 기록물은 왕이 수군절도사 등을 임명할 때 내린 명령서인 유서(諭書)와 관리 교체 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된 해유문서(解由文書), 수군의 조련절차가 기록된 홀기(笏記), 그리고 경상감영 재직 관리의 명단이 기록된 관안(官案) 등으로 조선시대 수군의 임명부터 훈련까지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다.

또한, 어업 기록물은 1813년 작성된 염전 상속문서인 염전분재기(鹽田分財記)와 1932년의 어업면허문서와 어장도, 1945년 물자가 부족했던 해방기에 생선의 구입허가 문서인 가정용 선어구입표 등으로 근대기까지의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10회 기록관리 포럼」 개최



기록관리 포럼 안내 포스터

국가기록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근대 건축물 복원사업 확대에 따른 근대도면 기록정보 공유 확대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기록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9월 23일(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0회 기록관리 포럼은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에 대한 해제작업을 수행한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이규철 연구원(동경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찬승 교수(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좌장으로 강현 전문위원(국립문화재연구소), 우동선 교수(한국예술종합대학교 건축과), 고주환 대표이사(주식회사 티엠세한) 등 학계, 민간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편, 제10회 기록관리 포럼 부대행사로 포럼 참가자들이 국가기록원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 구축 성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도면 해제집, 주요 건축도면 3D복원 영상, 도면 복원과정 등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도면 컬렉션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 ① 염전분재기(鹽田分財記, 1813년)
- ② 어업면허지령및어장도(1932년)
- ③ 가정용선어구입표(家庭用鮮魚購入票, 1945년)
- ④ 경상감영각반성명치부책(조선후기)

역사기록관은 이들 기록물에 대해 지난 5월 복원작업에 착수해 8월까지 약 4개월 간 작업을 진행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번에 복원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처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의 중요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기록정보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장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김정렬 사무국장, 왼쪽)와 대통령기록관(이재준 관장, 오른쪽)의 양해각서 교환 장면



▲ 양해각서 체결기관 기념 촬영 : 왼쪽부터 노무현사료연구센터 김상철 본부장, 원주역사박물관 이동진 관장, 국립중앙도서관 기민도 디지털기획과장, 대통령기록관 이재준 관장, 김영삼민주센터 김정렬 사무국장, 구미시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9월 1일(월) 대통령기록관(성남 소재)에서 김영삼민주센터를 비롯하여 5개 대통령기록 소장기관들과 「대통령기록정보 통합서비스」를 위한 소장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기관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원주역사박물관, 구미시 등이다.

「대통령기록정보 통합서비스」는 대통령기록관의 재임기록과 역대 대통령기념사업회 등 관계기관의 재임 전·후 기록을 연계하여 대통령 생애 전반의 기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문서, 사진, 행정박물, 선물, 연구성과물 등이 산재해 있으나 각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관리·서비스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대통령기록관과 역대 대통령기념사업회, 관련 연구소, 도서관, 지자체 등의 소장 정보가 통합·서비스됨으로써 국민들과 관련 연구자가 한 대통령의 재임, 재임 전·후의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그간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시절 연설문(1975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소장) 및 노무현 대통령의 제14대, 15대 총선 당시 선거 관련 기록물(1992, 1996,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소장) 등 대통령 재임 전·후 서한, 성장기·퇴임 이후 사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기록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도는 시범사업으로서 참여기관으로부터 소장 목록정보 7만 여건을 제공받아 서비스 체계를 구축, 12월부터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재청은 7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청장 Thomas S. Winkowski)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에 대한 한미 공조(2013.9월~2014.4월)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한미 정상회담(2014.4.25.)에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의 후속조치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급진전하게 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戰時)에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가 채택(1954.5.14.)되어 전시(戰時)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나, 비소급 효 원칙에 의해 6·25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6·25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하여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출품(2010.4월)된 것을 계기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 공조를 통한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 환수를(2013.9.3.)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수사 공조의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6·25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 공조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조를 통해 압수(2013.9.27.)한 '문정 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주 장릉지(譯註 章陵誌)』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관련된 고문헌 10건을 조사하고, 역주문·해제 등을 작성하여 『역주 장릉지(譯註 章陵誌)』를 발간하였다. 장릉은 인조(仁祖, 조선 제16대 임금)의 아버지 원종(元宗)과 어머니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침(陵寢,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이다.

이번에 역주한 고문헌 10건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9건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리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고문헌 중 '장릉지(章陵誌, 1777~1876년)'는 장릉의 조성 과정, 건물의 구조와 변화, 제수(祭需)와 제향(祭享)의 절차, 능을 지키는 인원, 심은 나무 등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다.

아울러 ▲능침 운영 지침, 사례·경비의 조달과 쓰임새 등을 기록한 「장릉 사례요람(章陵 事例要覽)」(1792~1900년) ▲제기(祭器)의 종류, 수량, 사용 연한을 기록한 「장릉 제기연한책(章陵 祭器年限冊)」(1792~1835년) 등 장

릉 경영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역대 능참봉과 령(令)의 이름·근무 기간·이력을 기록한 「구장릉선생안(舊章陵先生案)」(1642~1788년), 「장릉재관선생안(章陵齋官先生案)」(1899~1948년)도 포함되었다.

이 고문헌들은 능침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로 작성연대가 1642년 1월부터 1948년 7월까지 307년간에 걸쳐 있고, 오랜 기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릉을 실제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주목된다.

이번 「역주 장릉지」의 발간을 통해 장릉의 경제적 기반인 위전(位田) 33결이 인헌왕후의 고향인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있었고, 장릉에서 사용할 향나무(香木)와 땃감을 조달하는 곳은 수락산(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장릉의 조포사(造泡寺, 왕릉을 지키고 필요한 물품을 대던 사찰)인 봉릉암(奉陵菴)이 현재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금정사(金井寺)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릉의 당직근무 인원은 ▲능관(陵官, 령(令)과 참봉(參奉)) 1명 ▲수복(守僕, 청소 등을 담당하던 잡직) 2명 ▲번군(番軍, 경비 등을 담당하는 군사) 2명으로 편성되었고, 능관은 끼니때 밥, 국, 반찬 3첩, 장, 김치를 먹었다는 것, 1777~1876년(정조 1~고종 13)까지 장릉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소나무·전나무·상수리나무·해나무·단풍 나무였다는 사실 등 능침 경영의 세세한 실상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장릉의 역사를 정리하여 「장릉 연대기」를 작성하였다. 이 「연대기」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조선 연대기에서 뽑아낸 장릉 관련 기사에 조선 연대기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들을 보완하여 표로 완성한 것이다. 「장릉 연대기」에는 1619년(광해군 11) 12월에서 1948년 7월까지 330년간 1,303건의 사건들이 수록되었다.

이번 「역주 장릉지」의 발간은 장릉에서 300여 년간 진행된 실제 경영 모습을 재구성하고 재현할 수 있는 고증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크다. 「역주 장릉지」가 아름다운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조선왕릉 보존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장릉(章陵) 전경



『역주 장릉지(譯註 章陵誌)』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 ‘체험관’, ‘라키비움(Larchiveum)’ 개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 전경



원자력체험관 전경



원자력 라키비움 전경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를 한 눈에 보고 연구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 및 ‘원자력체험관’, 원자력 연구 기록물과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 라키비움(Larchiveum)’이 문을 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중배 국립중앙과학관장,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 김경원 국가기록원장 직무대리, 박계숙 한국전문도서관협회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이하 역사관), ‘원자력체험관’, ‘원자력 라키비움’ 개관식을 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2층에 총 189㎡ 규모로 조성된 역사관은 1959년 원자력 연구소 설립 이래 원자력 연구개발사 관련 자료를 전시했다. 원자력사업기술지원동 1층에 612㎡ 규모로 조성된 원자력체험관은 청소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 체험물과 전시물을 마련했다.

정보과학동 내 지상 3층, 총 2,898㎡ 규모로 구축된 원자력 라키비움*은 원자력 연구 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으로 구성됐으며 최신 학술지, 단행본, 연구기술보고서, 멀티미디어 정보 등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갖췄다.

* 라키비움(Larchiveum) :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합성한 신조어로,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역사관 및 원자력체험관은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확산하고 대국민 원자력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7개월 간 구축됐으며, 원자력 라키비움은 원자력 연구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고품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11개월 간 구축됐다.

역사관은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초창기에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원자력법(안) 자료를 비롯해 한-미 원자력협정문 등 역사 사료, 연대기별 연구원 발전사, 연구원 인물 기록사, 3D프린팅으로 만든 원자로 변천사 등을 담아 우리나라 55년 원자력 연구개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원자력체험관은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 중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SMART) 발전 원리 모형, 자연 방사선 관찰 상자, 우주식품을 비롯한 방사선 이용 기술 제품 등을 전시해 원자력의 원리와 연구 성과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원자력 라키비움은 연구기록물 550만 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과 국내 원자력 연구 연보, 연구 논문집, 회의록, 보고서, 발표 자료 등을 전시한 박물관, 최신 국내외 학술지와 교양 도서 등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60석 규모의 학술 세미나실과 다양한 규모의 멀티미디어실, 회의실을 갖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령 석탄박물관, 광부의 기록이 담긴 「7080 보령의 기억」 특별전 개최

보령석탄박물관은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80 보령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변화와 성장의 시기였던 1970~80년대 시대풍경과 더불어 석탄산업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탄광도시 보령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보령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추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물은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각종 포스터와 추억의 아이스케기통을 비롯한 서민들의 손때 묻은 생활자료, 우리지역 광부들의 기록 그리고 정감어린 사진자료 등 약 42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석탄박물관 소장 자료와 국립민속박물관, 국가기록원, 경산시립박물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 학교 등 총 12개 기관 대여자료 및 개인 소장 자료들이며, 특히 지역민이 소장하고 있던 당시 보령의 다양한 생활 자료들을 발굴 수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를 시도해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과거 탄광촌이었던 보령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대표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보령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령석탄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건립된 석탄박물관으로 가난했던 시절 온 국민의 안방을 덮히고 근대산업의 발전 동력이었던 석탄산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체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7080 보령의 기억」 특별전 포스터

세종시에 「한국향토문화자료관」 건립 추진

세종시에 지역 문화콘텐츠 생산거점인 한국향토문화자료관이 건립된다. 세종시는 7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향토문화자료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국비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관은 국도 1호선과 철도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세종시 조치원읍에 건립돼 전국 229개 문화원에 산재돼 보관 중인 지역문화자료 160만여 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세종시는 자료관이 건립되면 기존 문화예술회관 활용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등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와 '10대 문화도시 건설'과 연계한 지역 문화콘텐츠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향토문화자료관은 국비 140억 원, 문화원자부담 10억 원 등 1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읍면지역 부지 125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세종시가 국토의 중심부이고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뛰어나 자료관 입지에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자료관은 각종 지역문화자료 전시와 문화원실무자 교육·인력양성, 문화원연합회 회의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와 문화원연합회는 기재부의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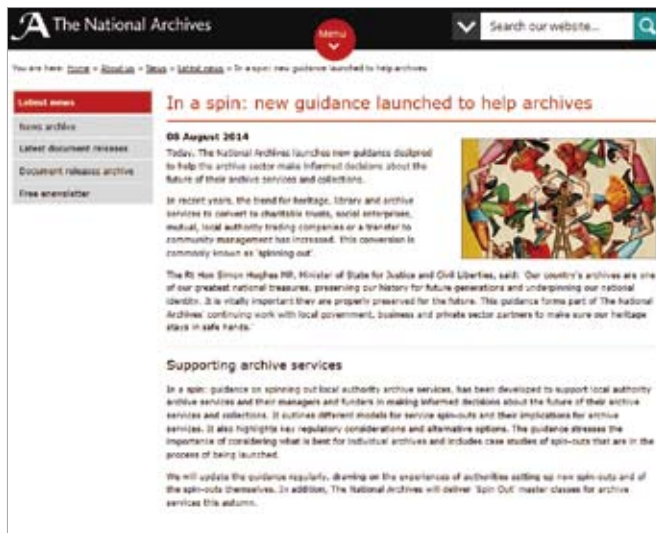


세종시에 건립될 한국향토문화자료관 조감도



| 영국 |

영국 국가기록원, 「혼란 속에 : 기록관을 돕기 위한 신규지침 발표」



2014년 8월 8일 영국 국가기록원은 아카이브 영역이 아카이브 서비스 및 소장물의 미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간했다.

최근 들어 유산(heritage), 도서, 아카이브 서비스가 위탁자선 단체,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되는 경향 또는 집단 경영으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Rt Hon Simon Hughes MP 차관(Minister of State for Justice and Civil Liberties)은 기록물은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를 보존하고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보물이라 언급하며, 기록물이 미래 이용을 위해 적절히 보존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발표된 지침은 국가적 유산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 정부, 기업 및 개인 영역 파트너들과 행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지속 업무의 일부를 다루는 것이다.



| 일본 |

일본 정보처리학회 인문과학과 컴퓨터 연구회

「개방화 되는 인문학」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일본 '정보처리학회 인문과학과 컴퓨터 연구회'에서는 「개방화 되는 인문학-그 가능성과 과제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2014년 12월 13~14일 양일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문을 모집 중이다.

- 주 제 : 디지털 아카이브, 보존과학, 문화재 방재,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화 문서, 역사학, 문헌학, 언어학 등의 인문계열 학문을 포함하는 디지털 인문학, 인문정보학, 시공간정보, 데이터마이닝, 색채정보처리,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 웹 활용, 정보검색, 메타데이터, 지적재산권 · 저작권 과제 등 사례와 현상비판 및 문제제기 등에 관한 것
- 일 정 : 논문 마감 9월 12일(논문채택 통지 10월 6일)

이 발표회는 최근 일본 인문학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화, 소프트웨어의 개방화, 커뮤니티의 개방화 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자원 공유화, 분야와 조직을 넘어서 다른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과의 협업, 그리고 보다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런 개방화의 움직임은 종래의 연구체계나 권리제도와 마찰을 일으키는 면도 있으며, 개방화에 수반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을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의 공유, 조직과 분야를 넘어서는 연계 등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개방화가 야기하는 영향 등에 대한 과제도 포함하여 인문과학과 컴퓨터의 미래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http://jinmoncom.jp/sympo2014/>



| 미국 |

국가기록청, 필름 보존 보조금 수령



국가 필름 보존 재단은 국가기록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 코다컬러 영상물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2년 가을, 웨스트버지니아 하퍼즈 페리 국립공원 서비스는 수백 박스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청으로 이관하였다.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코다컬러' 필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코다컬러 필름은 보통 흑백으로 보이나, 적절한 필터를 통해 투영될 때는 컬러로 보이게 되는 필름이다. 코다컬러는 필름에 감춰진 컬러에 접근하기 위해 특수한 기술을 요구한다. 필름 보존실은 코다컬러를 광화학적으로 보존하고 흑백의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쇠퇴한 코다컬러 자체로는 보존할 수 없었다. 아울러 보존실 직원은 필름에 숨겨진 컬러 정보를 저장하여 보존하기를 원했지만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을 통해, 필름 카피가 해독된 컬러 파일로부터 직접 생산될 수 있고, 영구 보존을 위해 필름으로 보존 및 획득 될 수 있었다.

일본 정보보존연구회

「자료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일본 정보보존연구회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11:00~18:00, 도쿄 우에노(上野)에 있는 도쿄국립박물관 평성관(平成館)에서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자료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하여-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8회 자료보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귀중한 자료의 보존 및 복원의 현황과 정보사회의 디지털 아카이브화의 미래에 대하여 현재의 노력과 향후의 과제에 대한 기초강연, 기술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심포지엄은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보존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전시도 준비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http://www.e-jhk.com/html/index.html>

영미 소식 | 서정호(표준협력과)
일본 소식 | 이윤경(공개서비스과)

Book 새로 나온 책

National Archives of Korea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권내현 | 역사비평사 | 2014-09 | 반양장본 | 204쪽
214×152mm | 345g | ISBN(13) : 9788976965479

17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에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김수봉’이라는 어느 노비 집안의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이야기다. 노비니까 당연히 신분 상승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당시 노비의 삶이 지닌 예측적이고 열악한 인간 조건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 인쇄 문화사



유창준 | 지학사 | 2014-08 | 양장본 | 256쪽
245×175mm | 805g | ISBN(13) : 9788905041427

문자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태동과 발전, 현재와 미래 인쇄문화산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모두 3편,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고대 인쇄사에는 문자 발생과 기록,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인쇄, 고려시대의 인쇄, 조선시대의 인쇄를, 제2편 근·현대 인쇄사에는 근대의 인쇄, 현대의 인쇄, 단체의 태동과 활동을, 제3편 21세기 인쇄문화에는 인쇄문화산업 현황과 미래의 인쇄를 담았다.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김인환 · 서정철 | 김영사 | 2014-08 | 반양장본 | 356쪽
225×165mm | 680g | ISBN(13) : 9788934968641

40여 년에 걸친 집념 어린 추적이 빚어낸 동해와 일본해 이름에 관한 연구서.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 한중일 삼국에서부터 아랍 세계와 서구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동해가 어떻게 불려왔는지 추적하고, 동해 이름에 대한 지명학적 연구 성과, 세계인들의 동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미래 대안을 담고 있다.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



최효찬 | 한솔수북(한솔교육) | 2014-07 | 반양장본 | 306쪽
225×168mm | 620g | ISBN(13) : 9791185494500

‘명문가 교육’ 전문가 최효찬의 최신작. 요즘처럼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시되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교육이 기초 중시의 독서교육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5백 년 명문가 중 10가문의 독서교육에서 핵심 비법만을 뽑아 오늘날 독서교육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금석학 연구



최영성 | 이른아침 | 2014-07 | 양장본 | 352쪽
223×152mm (A5신) | 634g | ISBN(13) : 9788967450311

개괄적인 우리 금석학의 역사 외에 광개토대왕릉비를 비롯하여 진흥왕순수비, 사산비명, 경주의 무장사비 등 우리 역사학과 금석학계에서 큰 논란과 학문적 논쟁을 일으켰던 주요 금석문의 내용들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승희 | 이학사 | 2014-07 | 285쪽
223×152mm (A5신) | 399g | ISBN(13) : 9788961471923



18~19세기(정조 대~철종 대) 조선 사회의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특징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일어난 사죄(死罪), 즉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통계를 통해 당시 민의 가감 없는 생활상을 살펴본다.

정절의 역사- 조선 지식인의 성 담론

이숙인 | 푸른역사 | 2014-06 | 반양장본 | 424쪽
223×152mm (A5신) | 620g | ISBN(13) : 9791156120162



‘정절’의 키워드로 조선시대의 내밀한 역사를 살핀 책. 저자 이숙인은 정절이 조선시대 역사의 내밀한 원리를 읽어내기에 유용한 개념임에 착안, 남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가 결합된 정절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호관계성의 개념이지만, 조선에서는 여성 일방의 의무개념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한다.

옛 여인에 빠지다

조혜란 | 마음산책 | 2014-06 | 반양장본 | 344쪽
212×152mm | 570g | ISBN(13) : 9788960901896



이 책은 고전소설 속 여인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운몽의 백능파, 춘향전의 춘향, 변강쇠가의 용녀, 삼한습유의 향랑 등 고전소설 속 여성 캐릭터 15명을 통해, 독자에게 옛 소설은 물론 옛 여인의 다양한 빛깔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담백하고도 여유롭게 옛글과 옛 여인들의 삶을 읽어주는 저자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의 생동하는 사회상과 인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림이 된 임진왜란

김시덕 | 학고재 | 2014-05 | 반양장본 | 360쪽
210×150mm | 500g | ISBN(13) : 9788956252612



동북아 질서를 뒤흔든 근세 최대의 국제전, 임진왜란 그 7년의 기록을 삽화로 담아낸 『그림이 된 임진왜란』. 17~19세기 일본의 목판화와 채색화 300여 점을 통해 전근대 동북아가 겪은 최대 규모의 전쟁 임진왜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에 수록된 삽화가 어떤 역사적 전개를 보이며 생산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